



KOREA TENNIS ASSOCIATION

NewsLETTER

vol.09 November 2025



PEOPLE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테니스를 해야”

완주국제주니어대회
임규태 토너먼트 디렉터

TOURNAMENT REPORT

ITF 완주국제주니어대회
ATF 14U 남원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DIVISION LEAGUE

디비전리그 챔피언십 우승팀,
미국 H마트배 테니스대회서 두각
대한테니스협회,
2025 해외대회 참가 사업 성공적 추진

I- LEAGUE

2025 테니스 유청소년클럽리그
전국 각지에서 일일클리닉 진행중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테니스를 해야”

완주국제주니어대회 임규태 토너먼트 디렉터

ITF 완주국제주니어대회(J300)토너먼트 디렉터를 맡은 임규태 감독은 매일 경기장을 돌며 선수들, 특히 국내 선수들의 경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다.

우천으로 인해 경기일정이 들쭉날쭉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선수들이 제일 힘들다. 프로 선수들도 날씨로 인해 일정이 미뤄지면 하루에 두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선수들에게 무리 가지 않도록 일정을 넉넉히 잡았지만 대회 초반부터 비가 계속 내려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는 날이 많았다. 선수들이 피로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쉽고, 특히 국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못 올린 게 아쉽다. 완주국제대

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이다 보니 이런 기회에 랭킹포인트를 많이 따서 세계무대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임규태 토너먼트 디렉터는 국내 주니어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선수들 경기를 거의 다 봤는데 외국 선수들에 비해 풋워크나 무브먼트에서 차이가 났다. 네트플레이 또한 많이 아쉽다. 14세 이하까지는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데 그 이후부터 성장이 더딘 것 같아 아쉽다.”

임규태 토너먼트 디렉터는 그 이유에 대해 훈련의 방법에서 찾는다. 14세 이후부터는 훈련을 다르게 가야하는 시기인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일본 선수들은 스윙 스피드도 빠르고 경기의 집중력에서 차이를 느낀다고 했다.

또한 임규태 토너먼트 디렉터는 “태국 선수들도 네트플레이가 좋고 터치 감각이 뛰어나 보였다.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그라운드 스트로크 위주로 단순한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 네트플레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플레이에서 실수가 많이 나올 정도로 단식에서 네트플레이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워했다.

이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테니스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 선수들이 결코 약하지는 않다. 그래도 침연을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네트플레이가 약하고 서브를 강화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연습 때 (네트로)안 들어가다가 시합 때 (네트로)들어가려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니어 시절에는 실수하면서도 배운다. 자꾸 시도를 해봐야 한다.”

국내 선수 중에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이가 있는지 묻자 “조민혁(남원거점SC)과

최정인(합천SC)의 기량이 많이 발전했다. 특히 조민혁의 경우 청소년대표 합숙훈련을 하면서 경기력도 올라오고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다. 훈련하는 태도와 성실함 거기에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최정인도 훈련하면서 눈빛이 달랐다. 이번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거라 기대된다. 홍예리도 어리지만 공격력이 좋고 나이에 비해 대담하게 경기를 한다. 다만 이런 큰 대회에서는 본인이 잘 하는 것에 더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어서 경기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지만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모든 대회는 선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임규태 토너먼트 디렉터는 경기 시작 시간도 가능한 늦추고, 코트 서피스도 부상 방지를 위해 세심히 살펴보았다. 간식거리와 시합구도 넉넉하게 지급하여 출전 선수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글 사진 황서진 기자(대한테니스협회 미디어팀)



ITF 완주국제주니어대회

이하음, 국내 선수 유일한 타이틀리스트

이하음(부천GS, IBK 주니어 육성팀)이 '하나은행 ITF 완주국제주니어J300대회'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10월 12일, 전북 완주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자복식 결승에서 이하음은 대만의 린위천과 합작하여 우승을 일궈냈다. 이하음의 개인 통산 14번째 복식 타이틀이며 J300등급의 첫 우승이다. 이하음-린위천은 일본의 이시이 코코나-미야자와 사키노 조를 1시간 20분만에 6-4 6-3으로 누르고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이하음은 "14번째 우승인줄은 몰랐다. 이번에 단식에서 성적을 내지 못해 아쉬웠는데 복식에서 조금이라도 채워서 기분이 좋다. 한국에서 7주 동안 아시아 시리즈를 뛰면서 부족한 부분도 잘 알았으니 멕시코, 에디허, 오렌지보울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내년 호주오픈 예선은 무조건 뚫는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하음은 이어 "국내랭킹이나 세계랭킹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 안쓰고 있다. 성인이 되어 그랜드 슬램에 모두 출전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목표다. 내일부터 다시 정비해서 다음대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단식 1번시드 잔가르 놀라놀리(카자흐스탄)가 천관소우(대만)를 6-2 6-1로, 여자단식은 1번시드 사와시로 카논(일본)이 린위천(대만)을 6-4 6-3으로 각각 이기고 남녀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복식은 일본의 가와니시 후-코마다 에이토 조가 천관소우-왕예천 조를 6-4 4-6 [10-5]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글 사진 황서진 기자(대한테니스협회 미디어팀)



- ① 남자단식 시상식 후
- ② 한국에서 11연승을 기록하며 이듬해 배, 완주국제주니어대회를 연속 석권한 놀라놀리
- ③ 대회 2관왕을 노렸던 천관소우는 단복식 모두 결승에서 지며 아쉬움을 삼켰다.
- ④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사와시로 카논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라이벌은 8강에서 만났던 이시이였다. 춘천에서 패하기도 했고 실력이 탄탄한 선수여서 걱정을 했는데 상대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에게 행운이 왔던 것 같다. 늘 그렇듯이 누구를 만나도 끝까지 집중하면서 나의 플레이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 ⑤ 남자복식 결승진출자. 오른쪽이 우승한 일본의 가와니시 후-코마다 에이토 조. 왼쪽이 천관소우-왕예천 조
- ⑥ 단식 준우승, 복식 우승한 린위천
- ⑦ 국내 선수로는 유일하게 타이틀리스트가 된 여자복식의 이하음(오른쪽)
- ⑧ 남자단식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한 조민혁
- ⑨ 여자단식 8강에 오른 안혜정
- ⑩ 이시이는 체력 고갈로 여자단식 8강에서 아쉽게 마감했다
- ⑪ 여자복식 결승
- ⑫ 복식 시상식 후



ATF 14U 남원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10월 11일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골테니스장에서 열린 2025 ATF 남원 14세 이하 국제 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가 이상현 임연경을 단식 챔피언으로 탄생시키며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테니스연맹(ATF)과 대한테니스협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국내외 차세대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었다. 대회 마지막 날 치러진 결승전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나란히 정상에 오르며 주니어 무대에서의 저력을 입증했다.

남자단식 결승에서는 이상현(영남중)이 이하준(양구중)을 6-4 6-3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초반부터 두 선수는 강한 서브와 안정된 스트로크를 앞세워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상현은 끈질긴 수비와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우위를 점했다.

우승을 차지한 이상현은 “지난 춘천 오택스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임연경은 “첫 국제대회 우승이라 정말 기쁘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임연경(홍연초)이 김아울(중앙여중)을 6-4 7-5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첫 세트는 긴 랠리가 이어지는 접전이었다. 임연경은 빠른 발을 활용한 코트 커버와 탄탄한 리턴으로 기회를 만들었고, 중반 이후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주도권을 가져왔다. 김아울은 힘 있는 스트로크로 맞섰지만, 결정적인 순간 범실이 나오며 경기를 내주었다.

한편 복식에서는 이하준-윤상원(이상 양구중), 박예나-김아울(이상 중앙여중) 조가 정상에 올랐다. 남자복식 결승에서 이하준-윤상원 조가 방준영(천안계광중)-박도완(안동중) 조를 상대로 6-1 6-3 완승을 거두며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중앙여중 동료인 박예나-김아울 조가 최윤설(수정초)-김태희(중앙여중) 조를 6-4 6-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남원 대회는 차세대 스타 발굴과 선수들의 국제 경험 확대라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 선수들이 결승 무대를 휩쓸면서 국제무대 도전의 경험을 제공했다. 글 사진 김도원 기자(대한테니스협회 미디어팀)



① 여자단식 우승 임연경 ② 남자단식 우승 이상현 ③ 남자복식 우승 이하준 윤상원 ④ 여자복식 우승 박예나 김아울
⑤ 단식 시상 단체 사진 ⑥ 복식 시상 단체 사진 ⑦ 남자단식 준우승 이하준 ⑧ 여자단식 4강의 도하현 ⑨ 외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른 제이드 조셉(호주)



대한테니스협회, 2025 해외대회 참가 사업 성공적 추진

디비전리그 챔피언십 우승팀, 미국 H마트배 테니스대회서 두각

대한테니스협회가 2025 스포츠클럽디비전리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디비전리그 챔피언십 우승팀 해외대회 참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국내 디비전리그 활성화 및 우수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작년 챔피언십 우승팀을 선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위디어 내로스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교류전 및 H마트 테니스대회에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 챔피언십 우승팀, 미국 무대 밝다

이번 참가 대상은 2024년 디비전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T4 ▲T5 ▲T6 ▲T7 부서의 4개 팀으로, 각 팀에서 선수 2명, 시도협회 관계자 1명씩 파견됐다. 참가한 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전북 드림(T4), 경북 포항일심(T5), 전남 목포(T6), 전북 전주대봉(T7)이 미국 땅을 밟았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참가자 명단을 8월 말까지 확정하고,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국제 교류를 진행했다. 참가 선수단은 9월 26일 미주한인테니스협회와의 교류전을 시작으로, 27~28일 양일간 열린 제16회 H마트배 테니스대회에 출전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한국 테니스의 위상을 높였다. 한국팀은 단체전 A+조에서 우승을 거뒀고 개인전 각 부서에서도 모두 준우승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전북 전주대봉클럽의 노정운-이승철 조가 A+

조 준우승, 경북 일심팀의 이상윤-김용재 조가 A조 우승을 차지했다. B조에서는 함께 해외 연수에 참가한 최기순 협회 부회장(공모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이상기 전남테니스협회 경기위원장이 페어를 이뤄 출전해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다.

디비전리그 활성화 위한 실질적 모델 제시

이번 해외 참가 사업은 단순한 대회 출전이 아닌, 국제 교류, 동기 부여,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의 위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배슬아 대한테니스협회 공모사업팀 팀장은 “디비전리그의 활성화와 우수 선수 격려를 위해 해외대회 참가 사업을 기획했다”며 “2026년에도 본 사업이 계속된다면, 올해 챔피언십 우승팀에서 선수단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팀이 출전한 H마트 테니스대회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인 테니스대회로, 미주

전역 한인들이 출전하는 대표 스포츠 행사다. 김인근 전 재미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이 테니스 하나로 힐링하고 화합하는 것이 대회의 진정한 목적”이라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해외대회 참가 사업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디비전리그의 국제화 가능성을 실현한 이정표가 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앞으로도 디비전리그의 활성화와 지역 테니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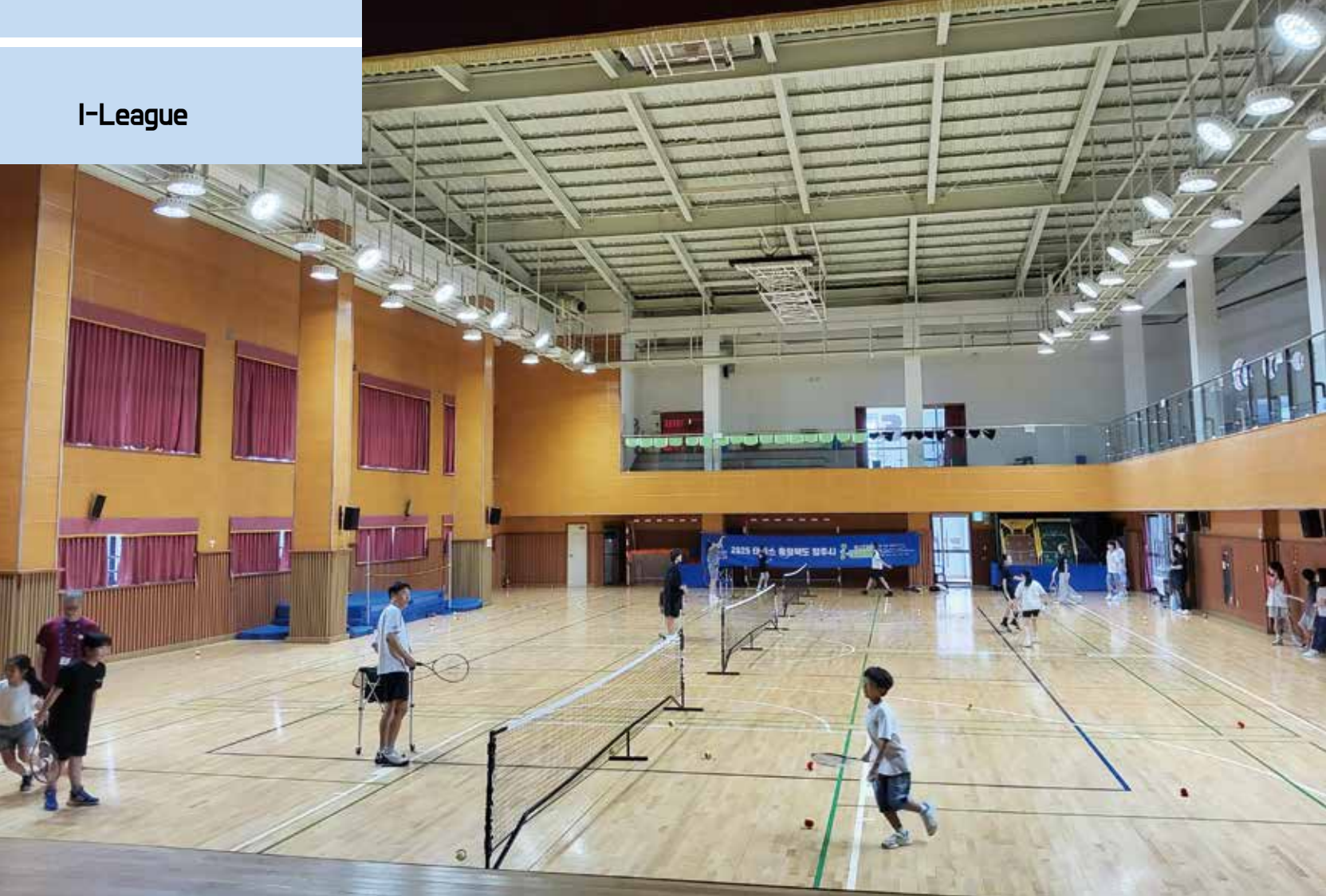
연말 디비전리그 챔피언십 ‘전 세대의 축제의 장’

KTA 디비전리그는 초보 동호인부터 프로 선수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개방형 통합 테니스 리그다. 수준에 따라 동호인 최상급 리그인 T4부터 초급 동호인을 위한 T7까지 4단계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한 리그 내에서 다수의 지역별 수준별 리그를 운영하고, 성적에 따라서 디비전 사이에 상위 리그 하위 팀과 하위 리그 상위 팀이 자리

를 옮기는 승강제도에 기반한 리그 운영체제다. 2022년 시작된 디비전리그는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작년 생활체육 최상급 레벨에 해당하는 T4 리그가 도입됐고 T6, T7에서 여성 리그가 첫 선을 보였다. 아울러 대학동아리 부서가 시범 운영됐다. 개인 종목인 테니스의 특성에 맞춘 ‘개인전 리그’ 그리고 대학동아리 부서를 아우르는 ‘청소년부’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올해 하반기 디비전리그 운영을 위한 약 2억원의 추가 보조금을 확보했다. 올해 챔피언십에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부를 시범 운영해 ‘전 세대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고령층을 위한 부서를 확대한다. 또한,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여 ‘스포츠스타와 함께 하는 원포인트 레슨’을 운영한다. 9월부터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11월까지 전국에서 20개 지역을 선정해 총 20회의 레슨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규모는 한 회 당 50명으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레슨이 제공된다.

글 박상욱 기자 사진_대한테니스협회

- ① 경기 전 기념 촬영 중인 한국팀 선수들(왼쪽)
- ② 참가단 단체사진
- ③ 트로피를 들고 있는 참가선수들
- ④ 경기에서 발리를 구사하는 한국팀 참가 선수
- ⑤ 우정의 종각을 방문한 참가단. 우정의 종은 미합중국의 독립 200주년을 맞아 한미 두 나라의 우의와 신의를 두텁게 하는 뜻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에게 기증한 우정의 선물이다
- ⑥ 실무를 담당할 협회 공모사업팀 배슬아 팀장, 윤진형(왼쪽), 윤원식(오른쪽) 팀원
- ⑦ 역사상 유일하게 하계 올림픽이 두 차례나 열린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방문



2025 테니스 유청소년클럽리그 전국 각지에서 일일클리닉 진행 중

테니스 유청소년클럽리그(이하 i-리그)의 특별 이벤트인 '프로선수 일일클리닉'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일일클리닉은 선정된 15개 지역에서 진행하며, 지역별 약 50명, 전체 750명의 유청소년이 참가한다. 프로선수와 KTA 전임지도자를 초빙해 전문 트레이닝을 실시하며 사인회, 원포인트 레슨 등으로 지속 의도를 고취하겠다는 것이 일일클리닉의 취지이다.

8월에는 포항에서 일일클리닉이 진행됐다. 포항 출신 은퇴 선수와 인기 테니스 코치로 강사진을 구성해 수준 높은 클리닉을 실시했다. 포항시 U-18 i-리그 일정과 연속성 있게 진행해 학생 선수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학부모 동호인들이 자녀의 참여를 독려해 온가족이 생활체육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와 청주에서도 일일클리닉이 열렸다. 대구에서는 8월 30일, 9월 7일 이틀간 일일클리닉을 운영하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테니스 체험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과 스포츠 활동 문화에

긍정적인 효과 달성이 목표였다. 전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었으며, 창의력과 판단력, 무엇보다 테니스 동기부여를 크게 높였다는 내부 평가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 구성, 매직테니스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테니스 저변도 확대할 수 있었다.

청주에서는 9월 14일 일일클리닉을 운영했다. 대상은 U-12 학생 30명으로 청원초등학교 5학년 15명, 6학년 15명이 클리닉에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포핸드, 백핸드 자세와 같은 기본기 훈련부터 시작해 레벨별 테니스 기능 연습, 경기 등의 레슨을 받았다.

4년차를 맞이한 올해 테니스 유청소년클럽리그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확대 운영 중이다. 오는 11월 15~16일에는 전북 완주에서 최대 이벤트인 i-리그 페스티벌이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i-리그 출전 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이 모인다. 테니스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 놀이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클 박성진 기자 사진 대한테니스협회



1 2 충북 청주 일일클리닉
3 4 5 경북 포항 일일클리닉
6 부산 일일클리닉
7 8 9 대구 일일클리닉



U12 대표팀, ATF 인터콘티넨탈대회 남녀 동반 준우승

대한민국 12세 이하 남녀 테니스 대표팀이 2025 ATF U12 인터콘티넨탈 국가대항전에서 동반 준우승했다. 결승에서 아쉽게 패하며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포디움에 올랐다. 올해 남녀 모두 결승에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12세 대표팀의 미래 가능성을 봤다.

2025 ATF U12 인터콘티넨탈 국가대항전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카자흐스탄 심켄트에서 열렸다. 12세 이하 왕중왕전 성격이다. 아시아 파이널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들과 오세아니아 대륙 국가, 아프리카 연합국 등과 최종전을 치렀다. 12팀이 조별예선을 거쳐, 결선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이었다.

남녀팀은 전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남자팀(감독 석현준)은 호주를, 여자팀(감독 이창훈)은 중국을 각각 결승에서 만났다. 하지만 남자팀은 호주에 0-3으로, 여자팀은 중국에 1-2로 패했다.

남자팀은 앞선 두 단식에서 모두 호주에 패했다. 호주는 이번 대회 줄곧 2단식에 출전했던 에이스, 조베 디켄버그를 단식 명단에 제외했으나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 역시 출중했다. 승패가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복식은 큰 의미가 없었다.

여자팀은 다시 한번 중국에 아쉽게 패했다. 7월 동아시아 예선, 8월 아시아 파이널스에 이어 중국에게만 3패째다. 앞선 대회에서 모두 중국 1위, 한국 2위로 마무리됐다. 올해 한국 12세 여자 대표팀은 중국에게만 전패를 당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을 상대로는 모두 이겼다.

최운설(수정초)이 1단식을 잡고, 임연경(홍연초)이 2단식 첫 세트를 잡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우승 가능성은 커보였지만 이후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

동반 우승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올해 12세 대표팀은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

다. 대륙간 국제경쟁력도 더욱 키워 나갔다.

남자팀은 동아시아 예선, 아시아 파이널스 모두 3위를 기록했었다. 동아시아 예선에서는 대만에게도 패했었다. 하지만 아시아 파이널스를 거쳐 인터콘티넨탈 대회에서는 최종 2위까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이겼으며, 오세아니아 국가인 뉴질랜드(조별예선)와 호주(결승)를 상대로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여자팀은 세 대회 연속 준우승이다. 모두 중국의 벽에 막혀 1위를 놓쳤다. 하지만 마지막 콘티넨탈대회에서는 중국을 버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중국과의 경기 내용은 대회가 거듭될수록 좋아졌다. 이번 시리즈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보였다.

ATF U12 인터콘티넨탈대회는 작년 신설한 대회다. ATF(아시아테니스연맹)가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부터 아시아 국가 선수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대회를 만들었다. 아시아를 다섯 권역으로 나눠 지역 예선을 실시했고, 이어 파이널스를 치렀다.

최종적인 인터콘티넨탈대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세아니아 국가 위주로 초청해 아시아 국가와 대결했다. 하지만 올해는 남아메리카연합(COSAT), 아프리카연합(CAT) 등을 추가했다. 테니스가 워낙 강세인 북미, 유럽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 국가들은 모두 출전한 것이다.

결과를 떠나 이 대회는 12세 국가대항전의 확장, 발전 가능성을 올해 대회를 통해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전세계 12세 국가대항전의 메인 이벤트로 확장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글 박성진 기자 사진 대한테니스협회